

## 遼의 군사제도와 전술

전병우\*

1. 머리말
2. 遼의 군사제도
  - 가. 중앙군
  - 나. 지방군(변방군)
3. 遼의 기병과 보병 전술
  - 가. 기병 전술
  - 나. 보병 전술
4. 맺음말

### 1. 머리말

거란은 한대(漢代) 선비(鮮卑)로 불렸으며 진대(晉代)부터 요산(遼山)일대 에서 살면서 불리게 된 부족명이다.<sup>1)</sup> 거란은 요하(遼河) 상

\*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역사교육과 박사과정

1) 『遼史』 권63, 「표」 제1, 세표.

류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양, 말, 돼지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반유목민이었다.<sup>2)</sup> 또한 이들은 소금 등을 생산하여 무역에도 종사하였으며, 주변 국가나 민족을 약탈하는 경제와 잡아온 포로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혼합 경제생활을 하였다. 거란은 7세기 무렵 고팔부(古八部) 연맹으로 부족을 조직하였다. 이후 고팔부 연맹은 수십부(隋十部)로 변화한다. 거란의 고팔부와 수십부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 부락의 특징을 지녔지만, 아직 부족 내지는 민족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았다. 수십부는 흘신수(紇臣水)부근에 살았으며, 10부로 나뉘어 있었다. 수십부는 군사가 많은 곳이 3천여명, 적은 곳은 1천여명 이었다. 전쟁을 일으킬 때는 10부가 상의해서 결정하였으며 수렵 시에는 각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sup>3)</sup> 이후 대하씨(大賀氏)연맹과<sup>4)</sup> 요련씨(遙輦氏)연맹 시기를 거치면서 부족제도가 생겨 점차 발전하였다.<sup>5)</sup> 이러한 부족제도는 요대 부족군을 형성하였으며, 유목민족 특유의 기마 전술을 발전시켰다.

거란을 국가적 단계에서 제국적 단계로 만든 것은 부족연맹 체제였다.<sup>6)</sup> 이 부족연맹을 국가적 단계로 통솔한 것이 야율씨족(耶律氏族)이었다. 야율씨족의 아율아보기(耶律阿保機)는 ‘황소의 난’으로 당이 혼란과 멸망으로 가는 시기에 907년 부족을 통합하였다.<sup>7)</sup> 아율아보기는 세습군주제라는 중국식 제도와 유교적 형태를 채택하여 중국 지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적인 제도가 2대 태종 대에 확립된 이중지배체제이다. 거란의 이중적지배체제는

2) 『구오대사』, 「외국열전」 거란조.

3)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4) 『遼史』 권33, 「지」 제2, 병위지. 대하씨가 군사 4만3천여명을 소유하였으며, 8부로 나뉘어 있었다.

5) 나영남, 「요대 부족제도의 양상과 그 성격」, 『동양사학연구』 131, 2015, 307쪽.

6) 『수서』 권84, 「북이전」 거란조. 수서에 보면 거란은 정벌이 있을 때는 각 부족에서 군대를 착출하고 있다. 이는 수대 거란이 느슨한 연맹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7) 유빛나, 「초기 거란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만주연구』 17, 2014.

북방민족과 한인(漢人)에 대한 통치구조이다. 거란의 이중적지배체제는 태조 대에 만들어진 북재상(北宰相), 남재상제(南宰相制)에서 시작되었다.<sup>8)</sup> 907년 태조(아을아보기)가 천황제(天皇帝)로 등극을 하고, 황후가 지황제(地皇帝)로 등극을 하면서 태조(아을아보기)가 우월(于越)겸 질탈부이리근(迭刺部夷離董)<sup>9)</sup>으로서 연맹가한(聯盟可汗)이 되었다. 연맹가한이 된 태조는 북·남양부(北南兩府)에 재상(宰相)을 두면서 각 부의 이리근을 나누어 그 예하에 두었다. 이리근은 각 부의 수령이란 뜻과 함께 돌궐어로 통군마대관(統軍馬大官)으로, 각 부의 군사수령(軍事首領)을 가리킨다. 916년 태조는 황제의 존호인 대성대명천황제(大聖大明天皇帝)로 등극하고, 황후의 존호를 응천대명지황후(應天大明地皇后)로 올렸다. 태조의 아들인 야율배(耶律倍)를 황태자로 책립하였다. 연호를 신책(神冊)이라 하였다.<sup>10)</sup> 태조는 922년에 거란의 핵심 부족인 질탈부를 5원부(五院部)와<sup>11)</sup> 6원부(六院府)로 나누고 이를 북원과 남원이라 하였다. 각각의 북·남양원에는 이리근을 두었다. 북원은 북원대왕이 책임을 맡고, 북부재상부를 두어 황후의 일족인 심밀씨(審密氏)를 재상으로 삼았다. 또한 남원은 남원대왕이 맡고, 남원재상부는 을실부(乙室部)가 핵심이 되어 저특부(楮特部)와 돌거부(突舉部)를 포함하고 있었다. 태조는 동생인 야율소(耶律蘇)에게 남원재상직을 맡기었다. 이들 양원은 상설 관직이 되었으며, 황족이 맡던 재상직을 성종 이후에는 한족도 맡을 수 있었다.<sup>12)</sup> 북·남양원에는 본원군마(本院軍馬)를 통솔하게 하였으며, 이들을 북부재상 아래 배속시켰다. 938년 북·남양원과 을실

8) 『遼史』 권2, 「본기」 제2, 태조.

9) 질탈부는 거란의 부족으로 황족인 야율씨는 질탈부 6석렬 중 활뢰석렬(轄瀨石烈)에서 나왔다. 석렬은 중국의 현(縣)과 같고 미리(彌里)는 향(鄉)과 같다.

10) 『遼史』 권1, 「본기」 제1, 태조.

11) 5원부에는 대멸고(大蔑孤)와 소멸고(小蔑孤) 두 석렬이 있었다. 939년에는 구곤(毳昆)과 을습(乙習) 두석렬을 추가하였으며, 오고(烏古)에 살게 하였다.

12) 『遼史』 권45, 「지」 제15, 백관지.

부이리군을 대왕(大王)이라 고쳐 부르고, 각 부의 이리군을 당의 제도를 따라서 절도사로 고쳐 불렀다. 절도사는 행정과 군정을 총괄하였다.<sup>13)</sup> 태조 대의 북·남원이 태종 대에 북추밀원으로 흡수가 되고,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남추밀원을 설치하였다.<sup>14)</sup>

태종은 936년에 연운십육주를 탈취하고, 국호를 대요(大遼)로 고쳤다. 요가 건국된 이후 부족조직은 군정합일(軍政合一)의 특징을 강화한다.<sup>15)</sup> 요의 부족조직은 군정합일로서 행정, 생산, 군사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직능을 맡았다. 부족민은 매년 양(羊)으로 조세를 납부했으며, 세액은 소유하고 있는 목축의 수로 결정하였다. 부족 장관인 절도사는 세액 외에 매년 안장, 말, 귀중품 등을 조정에 진상하였다. 또한 봉록 이외에 관원에게 내리는 하사품도 모두 부족민에게서 거두었다.<sup>16)</sup> 이와 함께 요가 건국된 이후에도 부족적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사귀전(射鬼箭)이 있다. 사귀전은 요군의 출정 의식으로 황제가 친정을 위해 갑옷을 입고, 선대 황제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시행되었다. 사형수 1명을 출정을 나갈 방향의 기둥에 묶어 놓고 귀신 우는 소리를 내는 화살인 명전(鳴箭)을 쏘아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꽂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전장에서 군사를 물릴 때도 포로를 잡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sup>17)</sup>

요는 거란족이 아니더라도 공을 세울 경우 중요 관직에 임명하였다. 이는 거란족이 아닌 종족도 거란족과 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거란군의 효율적 운영에 적합하였다. 거란족화 된 다른 종족가

13) 『遼史』 권1, 「본기」 제1, 태조.

14) 『遼史』 권45, 「지」 제15, 백관지. 태종 대에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거란은 국제(國制)로 다스리고 한족은 한제로 다스렸다.

15) 『遼史』 권31, 「지」 제1, 영위지.

16) 나영남, 앞의 글(2015), 324쪽.

17) 『遼史』 권51, 「지」 제20, 예지 3, 군의. 태조 때 있었던 기사 가운데 반란군이 태조의 군대를 향해 사귀전을 행하자, 태조도 역막이를 위해 똑같이 반란군을 향해 사귀전을 행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운데 한족(漢族)인 한덕양(漢德讓)이 있다. 한덕양은 한인이면서 요에 공을 세워 대승상 진국공(鎭國功)이 되었다. 이후 1004년 국성(國姓)인 야율씨를 하사 받으면서 야율융운(耶律隆運)이 된다. 야율융운이 아들을 두지 못하자 천조황제가 황자 야율오로알(耶律敖盧斡)로 후사를 잇게 하였다.<sup>18)</sup> 야율융운은 II장에서와 같이 문충왕부(文忠王府)를 세우고 중앙군인 궁위기군(宮衛騎軍)을 양성하였다.

본 글의 II장에서는 요의 군사제도를 살펴보고겠다. 요는 부족적 전통과 중국의 제도를 결합하여 자신들만의 군사제도를 운영 하였다. 다음으로 III장은 요의 기병 전술과 보병을 활용한 공성 전술을 살펴보고겠다. 요는 건국 초기 초원에서 부족간의 전투에 유리한 기병 중심의 전술을 운영하였지만, 농경지역을 정복하면서 공성을 위한 보병 전술을 발전시켰다.

## 2. 遼의 군사제도

### 가. 중앙군

발해와 중국 화북지방을 점령한 요는 이미 농경사회에 접어들어 있었다.<sup>19)</sup> 태조 이후 황제들은 농상을 장려하고 방적을 교육하였다. 또한 병력이 이동할 때는 벼가 심어진 논을 피하게 하였다.<sup>20)</sup> 이는 요군이 봄의 경우 1월에 출병하여 4월에 철수하고, 가을에는 9월에

18) 『遼史』 권82, 「열전」 제12, 야율융운.

19) 최진열, 「유목국가-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운영과 정주·농경민의 역할」, 『고구려발해연구』 46, 2013. 164쪽. 거란은 주변의 한인들을 잡아다가 성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한인을 이용하여 농사와 소금 생산을 시켰다.

20) 『遼史』 권59, 「지」 제28, 식화지. 태종은 중농정책을 펴고 있으며, 군에 의해 벼가 상할 경우 군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975년 송의 침입으로 군량이 부족해진 북한에 곡식 20만곡을 지원하고 있다.

출병하여 12월에 철병하는 것을 상례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요는 중농정책과 병농일치 정책의 하나로 둔전(屯田)을 운영하였다. 둔전은 군둔과 민둔의 두가지로 운영되었으며, 군둔은 군사 조직의 형식으로 병호(兵戶)가 종사하도록 하였다. 민둔의 경우 민호를 주체로 종사 시켰다.<sup>21)</sup> 농경사회로 접어든 요는 군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백64만2천8백 명 정도였으며, 이중 1백10만7천3백명 정도가 향병 이었다. 이 병력수에는 궁정(宮丁), 대수령(大首領), 제부족(諸部族)과 중경, 두하(頭下) 등의 주(州), 속국군은 포함되지 않은 수이다.

요의 관직 가운데 군사와 관련된 병부는 주로 북면관의 북추밀원(北樞密院)에서 맡아보았다.<sup>22)</sup> 북추밀원은 병기(兵機)와 무전(武銓), 군목(群牧), 군마(軍馬)의 일을 맡으면서 군정을 총괄하였다. 북면관의 북면군관(北面軍官)이 궁장(宮帳), 부족(部族), 경주(京州), 속국(屬國)에 소속된 군대를 통솔하였으며, 요나라의 군관(軍官)은 다음 <표 1> 과 같다.<sup>23)</sup>

<표 1> 요의 북면군관(軍官)

관부(官府)	내용
천하병마대원수부 (天下兵馬大元帥府) : 태자와 친왕이 군정을 총괄함	천하병마대원수(天下兵馬大元帥 : 922년 태조가 황자에게 임명. 지위가 남북면 제상보다 높았고 요의 전체 군대를 관장함. 947년 태종 대부터 추밀사를 겸하도록 하였고, 최고 군직이었음), 부원수(副元帥).
대원수부(大元帥府) : 대신이 군어의 정무를 총괄함	대신으로 대원수(大元帥), 부원수(副元帥)를 삼았음. 남경도원수부에는 도원수, 대원수를 두었음.
도원수부(都元帥府) : 대장이 군어의 정무를 총괄함	병마도원수(兵馬都元帥), 부원수(副元帥), 동지원수부사(同知元帥府事).

21) 『遼史』 권19, 「본기」 제19, 흥종.

22) 『遼史』 권45, 「지」 제15, 백관지.

23)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편의종사부(便宜從事府)	편의종사(便宜從事)
대상은사(大祥穩司) : 상은사란 주관한다는 뜻임.	대상은(大祥穩: 대상은사의 장관, 한 방면의 관부를 감치(監治)하는 장관이다), 도감(都監), 장군(將軍: 남면의 장군에는 직명 앞에 위(衛)명을 붙인다), 소장군, 군교(軍校), 대수(隊帥).
동도성(東都省) : 군마의 정무분.	동도성태사(東都省太師).
서도성(西都省)	서도성태사(西都省太師)
대장군부(大將軍府) : 각 부대를 통솔함.	대장군(명예직으로, 표기, 보국, 진군, 관군, 회화, 귀덕 등에다 대장군을 붙였음), 상장군(북면관에 소속된 직위, 직명 앞에 위명(衛名)이 붙음), 장군, 소장군.
호군사(護軍司)	호군사도(護軍司徒).
제로병마통서사(諸路兵馬統署)	제로병마도통서(諸路兵馬都統署), 제로병마부통서(諸路兵馬副統署).
<p>좌피실상온사(左皮室詳穩司), 우피실상온사(右皮室詳穩司), 북피실상온사(北皮室詳穩司), 남피실상온사(南皮室詳穩司), 황피실상온사(黃皮室詳穩司), 속산군상온사(屬珊軍詳穩司): 원친황태후가 설치한 황실 친위군, 사리군상온사(舍利軍詳穩司): 황족으로 종군(從軍)한 자들을 통솔한다. 황장(橫長)과 삼부방(三父房)이 여기에 속함), 북왕부사리군상온사(北王府舍利軍詳穩司): 오원의 황족이 속한다)</p> <p>남왕부사리군상온사(南王府舍利軍詳穩司): 옥원의 황족이 속한다), 금군도상온사(禁軍都詳穩司): 금위의 모든 군무를 관장한다), 각부족사리사(各部族舍利司): 각 부족의 자체들을 관장한다), 낭군군상온사(郎君軍詳穩司): 지장낭군(著長郎君)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예달군상온사(曳達軍詳穩司): 군의 예달사는 변방의 군정보를 담당한다), 기고예달상온사(旣高曳達軍詳穩司): 기와 북에 관한 일을 맡는다), 천예달상온사(千曳達軍詳穩司), 맹예달상온사(猛曳達軍詳穩司), 목리군상온사(墨離軍詳穩司), 포수군상온사(砲手軍詳穩司): 공성전을 위한 돌쇠너(飛礮)를 담당한다), 노수군상온사(弩手軍詳穩司): 활쇠너(強弩)를 담당한다), 철림군상온사(鐵林軍詳穩司), 대웅군상온사(大鷹軍詳穩司), 응군상온사(鷹軍詳穩司), 골군상온사(鶻軍詳穩司): 대·소골군으로 편성된다), 봉군상온사(鳳軍詳穩司), 용군상온사(龍軍詳穩司), 비룡군상온사(飛龍軍詳穩司), 호군상온사(虎軍詳穩司), 웅군상온사(熊軍詳穩司),<sup>24)</sup> 좌철요자군상온사(左鐵鎗軍詳穩司), 우철요자군상온사(右鐵鎗軍詳穩司), 용위군상온사(龍衛軍詳穩司), 위승군상온사(威勝軍詳穩司), 천운군상온사(天雲軍詳穩司), 특만군상온사(特滿軍詳穩司), 적렬군상온사(敵烈軍詳穩司), 적렬피실상온사(敵烈皮室詳穩司), 효리해군상온사(翥里奚軍詳穩司), 날기해군상온사(捏哥奚軍詳穩司), 말해군상온사(渤海軍詳穩司), 여고렬상온사(女古烈詳穩司).</p>	
<p>해왕남극군상온사(奚王南剋軍詳穩司): 극관은 부대의 통솔지란 뜻이다), 해왕북극군상온사(奚王北剋軍詳穩司), 국구장극군(國舅長剋軍), 삼극군(三剋軍: 통군관(統軍官)을 높여 삼극이라 한다), 빈필극군(頻必剋軍), 구극군(九剋軍).</p>	
십이행규군(十二行紮軍)	부족규군으로 기고병(旣高兵)을 맡으며, 기고예달에 속하기도 함. 요의 국장(國仗)에는 십이신독(十二神纛), 십이기(十二旗), 십이규군(十二紮軍)이 있음. 한편, 규군이란 다양한 부족인을 모아서 편성한 군으로, 태조가 항복한 부족들을 각 부에 배치하면서 규(紮)라고 범칭(汎稱)함.
각궁분규군(各宮分紮軍)	황제의 알로타에는 각 궁을 호위하는 궁위규군이 있음. 태조 때 홍의궁을 지키는 군사에는 규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태종의 영흥궁에도 규군이 있었음. 성종 때에는 각궁분규군이 정식군으로 편성되었음.

요런구군 (遙釐亂軍)	요런씨 아래 둔 부대임. 태조가 요런씨를 대신하여 건국하고, 요런가한의 종족을 황족으로 대우하였음. 요런구군은 선봉군으로 926년 발해 흘한성(忽汗城)을 정복함.	
각부족구군(各部族亂軍)	각 부족마다 대부분 구군이 있었음.	
군목이구군(群牧二亂軍)	동북로와 서북로의 여러 규모 조직함.	
원군팔영도상온사 (怨軍八營都詳穩司)	1116년에 진진왕(秦晉王) 야율순(耶律淳)이 요동의 굶주린 백성 2만여명을 모아 원군(怨軍)으로 편성 함. 이후, 야율순이 선종이 되면서 상승군(常勝軍)으로 고쳤음.	
전의영(前宜營), 후의영(後宜營), 전금영(前錦營), 후금영(後錦營), 건영(乾營), 현영(顯營), 건현대영(乾顯大營), 암주영(巖州營)	8영은 모두 군사를 모집한 주(州)의 이름으로 불렸음.	

요의 황제는 전쟁이 있을 때는 문무 관료를 대동하고, 푸른 소와 흰 말로 하늘과 땅과 일신(日神)에게 고하였다. 하지만 달(月)에게는 절하지 않았다. 황제는 선조의 능(陵)과 목엽산신에게 고하고, 각도에 조서를 내려 군사를 징집하였다. 단, 남·북·해왕과 동경의 발해 지역 군대와 연경의 통군병마(統軍兵馬)는 조서를 받더라도 출병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요군의 핵심 병력이었으며, 황제의 칙사가 금어부(金魚符)를 통해 군사를 움직일 수 있었다.<sup>25)</sup> 중앙군으로 전장에 출정하는 훈척대신(勳戚大臣) 가운데 행영병마도통(行營兵馬都統),<sup>26)</sup> 부도통, 도담(都監)을 각각 1명씩 선발하였다. 또한 각 군의 병마 가운데 정예병을 선발하여 3만으로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호가군(護駕軍)을 편성하였다. 황제가 친정시에는 친왕 1명을 권지군국대사로 유주에 남겨 둔다. 송나라 경내로 진입시에는 군을 3로로 나누어 광신군, 웅주, 패주로 각각 들어간다. 어가는 반드시 중도(中道)로 경유하고, 병마도통과 호가등의 군사들이 모두 따른다. 황제가 친정하지 않을 경우, 중신(重臣)이 15만여명을 통솔하여

24) 『遼史』 권13, 「문기」 제13, 성종. 성종은 남경의 용군을 신군(神軍)으로 고쳐불렀다.

25)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금어부가 서로 부합된 이후에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26)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정벌을 맡아 여러 도의 병마를 총괄하는데 정절(旌節)은 하사하지 않았다. 군병을 해산하면 이 관직도 없었다.

3로로 나누어 출정한다. 북경에서 군사를 모아 9월에 진격하고, 12월에 물러난다.<sup>27)</sup>

요는 중앙군과 함께 부족군도 운영하였다. 요 조정의 명령에 의해 부족장들은 부족의 크기에 따라 부족군을 편성하였다. 부족장들은 자신들의 군마와 병력을 조사하고, 황제에게 보고한 후에 출정지로 이동하였다. 요의 군사제도는 유목민의 유습을 이어받은 병민 일치였다. 각 부족 장관은 평시의 행정 장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의 지휘관으로 전환되었다. 요의 북면관에 소속된 거란족과 기타 부족들은 대부분 기병이 중심인 부족군(部族軍)에 속하였으며, 한족(漢族)은 보병 중심의 향병에 포함되었다. 각 부족으로 구성된 군대는 부족군으로 칭하였으며, 요의 군대 서열 가운데 기병 중심인 어장친군(御帳親軍)과 궁위기군(宮衛騎軍)의 다음이며, 보병 중심인 오경향병(五京鄉丁)의 위였다. 어장친군은 황제의 친위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장친군으로 태조가 만든 대장피실군(皮室軍)과 응천황후가 만든 속산군(屬珊軍)이 있었다.

태조는 피실군을 관리하기 위한 피실상온사를 설치하고, 여러 부족의 정병 1천여 명을 뽑아 시위친군(侍衛親軍)을 만들었다. 피실상온사는 후에 복심부(腹心部)라 하였으며, 좌우피실상온관을 두었다. 『요사』에는 좌피실상온으로 조복 토벌에 공을 세운 소배압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28)</sup> 피실군은 친위군으로 전쟁터에서의 활약한 것이다. 요의 친위군은 응군(鷹軍)에서 파생된 것이다. 응군은 태조의 친위군이었으며, 매처럼 빠르고 용맹한 정예군으로 편성되었다. 태조는 응군을 동원하여 909년 흑거자실위를 토벌하였다.<sup>29)</sup> 요의 친위군은 기병 중심이며, 응군(鷹軍), 용군(龍軍), 봉군(鳳軍), 호군(虎軍) 등이 있다. 친위군은 태조

27)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28) 『遼史』 권88, 「열전」, 소배압. 소배압은 1018년 고려 정벌의 패배로 관직에서 면직된다.

29) 『遼史』 권1, 「본기」 제1, 태조.

대에 3만여기였으나 태종 때에는 30만여기로 늘어났다.<sup>30)</sup> 태종은 피실군을 좌·우·남·북·황피실상운사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황제 직속으로 하였다. 피실군은 윤번으로 궁장(宮帳)을 지켰고, 오경과 변방 요지에 주둔하였다.<sup>31)</sup> 이들 시위군은 시위사(侍衛司)에서 총괄하였다. 속산군은 20여 만명의 기병으로 응천황태후(應天皇太后)가 설치하였다. 태조를 따라 전장에 나가 항복한 포로들 가운데 선발하여 정예병으로 키웠다. 이밖에 어장친군으로 묵리군(墨離軍)과 사이군(舍利軍)이 있었다. 묵리군은 태조가 설치하였으며, 태종이 즉위하면서 얼마 안가 폐지하였다.<sup>32)</sup> 귀족 자제로 구성된 사이군은 요군 가운데 정병 4,000여 명을 선발하여 도성 안을 지키게 하였다. 이들은 매일 1천여명씩 돌아가며 번을 썼으며, 황제를 따라 행궁의 경비를 책임지었다.<sup>33)</sup>

다음 〈표 2〉와<sup>34)</sup> 같이 요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민호(民戶)들을 이주시켜 궁위(알로타)를 설치하고,<sup>35)</sup> 친위군으로 궁위기군(宮衛騎軍)을 운영하였다. 태조는 궁위기군을 통해 자시의 친위군을 보강하였으며, 역대 황제들도 이와 같이 궁위기군을 설치 운영하였다. 궁위기군은 궁위에 소속되어 평시에는 농경에 주로 종사하였다.<sup>36)</sup> 북면관의 제할사(提轄司)는 평소 궁위기군을 관리하는 관서였다. 이들은 각 궁 소속의 궁위기군을 관리하였으며, 전시에는 5경과 2주에서 군사를 소집하는 일을 맡았다.<sup>37)</sup> 이러한 제도를 통

30) 『遼史』 권3, 「본기」 제3, 태종.

31) 『遼史』 권9, 「본기」 제9, 경종. 시위군이 좌천우위대장군의 지휘로 변방에서 송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

32) 『遼史』 권3, 「본기」 제3, 태종.

33) 『遼史』 권32, 「지」 제2, 영위지.

34)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35) 알로타는 궁위의 거란어이다. 만주어와 몽골어로 궁전이란 뜻이다.

36) 『遼史』 권31, 「지」 제1, 영위지. 궁위는 모두 83주, 10현, 41제할사(提轄司), 23석렬(石烈), 74와리(瓦里), 98말리(抹里), 2득리(得里), 19갑살(闡撒)이 있었다. 정호가 8만, 번한(蕃漢)에서 옮겨온 민호가 12만 3천으로, 모두 20만 3천호였다.

37) 『遼史』 권35, 「지」 제5, 병위지.

해 요는 신속하게 병력을 10만 기 정도를 모을 수 있었다. 이들 제할사는 12궁 1부에 각각 배치가 되었으며, 각 궁장 제할사 대부분이 5경과 평주(平州), 봉성주(奉聖州)에 있었다.<sup>38)</sup>

〈표 2〉 요의 궁위기군인 12궁 1부의 병력

	궁위	내용	궁위기군
태조	산알로타	심복궁(心腹宮)이며, 홍의궁이라 한다. 태조의 친위군이다. 주로 발해 포로와 금주(錦州)의 민호로 보충하였다.	6,000여명
태종	국아련알로타	수국궁(收國宮)이며, 영흥궁이라 한다. 주로 발해의 유민을 배치하였다.	5,000여명
세종	야로완알로타	흥성궁(興盛宮)이며, 적경궁이라 한다. 운주와 고주와 의주의 민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8,000여명
응천 황태후	포속완알로타	흥룡궁(興隆宮)이며, 장령궁이라 한다. 주로 요주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5,000여명
목종	탈리본알로타	토평궁(討平宮)이며, 탈리본이라 한다. 국아련알로타의 민호와 남경제차사, 함주, 신주, 한주 등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2,000여명
경종	감모알로타	유유궁(遺留宮)이며, 창민궁이라 한다. 내몽골의 무안주 등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10,000여명
승천 황태후	고온알로타	옥궁(玉宮)이며, 승덕궁이라 한다. 건주, 현주, 생주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10,000여명
성종	여고알로타	황금궁(黃金宮)이며, 흥성궁이라 한다. 국아련, 야로완, 포속완 등의 알로타민을 배치하였다.	5,000여명
흥종	와독완알로타	자식궁(孳息宮)이며, 연경궁이라 한다. 각 알로타와 요주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10,000여명
도종	이사알로타	관대궁(寬大宮)이며, 연경궁이라 한다. 각 알로타의 어전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람과 흥중부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15,000여명
천조 황제	아로완알로타	보좌궁(輔佐宮)이며, 영창궁이라 한다. 각 알로타의 어전승응인, 춘주, 성조의 민호를 배치하였다.	10,000여명
효문 황태제	적시득본알로타	효궁(孝宮)이며, 동목궁이라 한다. 발해와 건주, 심주, 암주의 민호를 배치한다.	5,000여명
대승상 전국왕	문충왕부	진국왕 아술응운은 본래 한덕양(韓德讓)이다. 공을 세워 국성(國姓)을 하사받았다. 아들이 없자, 천조황제가 황족을 양자로 삼게 하였다. 상서령에 추증되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다.	10,000여명

38) 『遼史』 권13, 「본기」 제13, 성종.

요는 5경인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에 유수(留守)를 두어 부윤(府尹) 겸 본로병마도총관(本路兵馬都總管)을 겸하게 하였다. 각각 5경의 유수는 민정과 군정을 담당하였다. 수도의 궁성 방어는 당제를 모방한 좌우감문위를 두어 여러 궁문을 지키고, 출입과 관련된 문서를 관리토록 하였다. 군관으로는 좌감문위상장군과 우감문위상장군이 있으며, 그 아래 아문(衙門)과 감수(監守) 등을 두었다. 요의 5경에는 요의 주력군이면서 수도 방위 및 전시의 중앙군으로 참전한 오경향병(五京鄉兵)이 있었다. 오경향병은 아래 <표 3> 과 같이 구성되었다.<sup>39)</sup> 5경의 오경향병은 1백10만7천3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오경향병의 구성

도시 명	부명	현명(縣名 : 향병 수)
상경 <sup>40)</sup> 향병 167,200명	임황부 (내몽골 파라성(波羅城))	임황현(7천명), 장태현(8천명), 보화현(6천명), 정패현(6천명), 선화현(4천명), 노현(6천명), 역속현(1천5백명), 청요현(1천5백명)
	조주 (내몽골 임서현(林西縣))	장패현(4천명), 함령현(2천명), 월왕성(2천명)
	회주 (내몽골 파라성(波羅城) 동남)	부여현(3천명), 현리현(2천명)
	경주 (내몽골 립서현(林西縣) 동쪽)	현령현(1만2천명)
	태주 (길림 백성시(白城市) 동남)	홍국현(1천4백명)
	장춘주 (길림 백성시(白城市) 동쪽)	장춘현(4천명)
	오주(내몽골 통요시(通遼市))	애민현(2천명)
	영주 (내몽골 개어현(開魚縣) 서남)	장령현(9천명), 의풍현(3천명), 자인현(8백명)
	의곤주(산서 요현(遼縣))	광의현(5천명)
	용화주 (내몽골 개어현(開魚縣) 서남)	용화현(2천명)
	강성주(용화주(龍化州) 동쪽)	영안현(1천5백명)

39)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요주 (내몽골 황수석교(潢水石橋) 부근)	장락현(8천명), 임하연(2천명), 안민현(2천명)	
	두하주(頭下州)	휘주(2만명), 성주(8천명), 의주(8천명), 위주(2천명), 원주(1천명), 호주(1만2천명), 복주(5백명), 황주(4백명), 봉주(1천명), 수주(1천명), 풍주(1천명), 순주(2천명), 여주(2천명), 송산주(1천명), 예주(1천명), 영주(6백명)	
동경 <sup>41)</sup> 향병 41,400명	요양부(요령사)	요양현(3천명), 선향현(3천명), 학야현(2천4백명), 석목현(2천명), 자몽현(2천명), 흥요현(2천명)	
	개주	개원현(2천명)	
	염주	기록에 현명이 없음.	5백명
	목주		5백명
	하주		5백명
	정주	정동현(1천6백명)	
	보주	내원현(2천명)	
	진주	기록에 현명이 없음.	4천명
	노주		5백명
	철주		2천명
	흥주		3백명
	탕주		7백명
	승주		1천명
	해주		1천2백명
	요주		7백명
	빈주		4천명
	녹주		1천명
	풍주		5백명
	정주		7백명
	모주		3백명
남경 <sup>42)</sup> 향병 56만6천명	석진부		석진현(4만명), 완평현(4만4천명), 창평현(1만4천명), 양향현(1만4천명), 노현(1만1천명), 안자현(2만천명), 무청현(2만명), 영청현(1만명), 향하현(1만4천명), 옥하현(2천명), 괘음현(1만명)
	순주(하북 순의현)	회유현(1만명)	
	단주(요령 개원현)	밀운현(1만명), 행당현(6천명)	
	탁주(하북 탁현)	범양현(2만명), 고안현(2만명), 신성현(2만명), 귀의현(8만명)	
	역주(하북 역현)	역현(5만명), 내수현(5만4천명), 용성현(1만명)	

	계주 (하북 대흥현 서남쪽)	어양현(8천명), 삼하연(6천명), 옥전현(6천명)	
	평주(하북 노용현)	노룡현(1만4천명), 안회현(1만명), 망도현(6천명)	
	난주(하북 난현)	의풍현(8천명), 마성현(6천명), 석성현(6천명)	
	영주(요령 조양현)	광녕현(6천명)	
	경주(하북 준화현)	준화현(6천명)	
서경 <sup>43)</sup> 향병 32만2천7백명	대동부	대동현(2만명), 운중현(2만명), 천성현(1만명), 장청현(8천명), 봉의현(6천명), 회인현(6천명), 회안현(6천명)	
	홍주(산서 대동시 동쪽)	영녕현(2만명), 순성현(6천명)	
	덕주(산서 대해(岱海) 북쪽)	선덕현(6천명)	
	풍주 (내몽골 호화호북(呼化湖北) 동쪽)	부민현(2천4백명) 진무현(향병 3백명)	
	봉성주(하북 탁록(涿鹿))	영흥현(1만6천명), 반산현(6천명), 용문현(8천명), 망운현(2천명)	
	귀화주(하북 선화현)	문덕현(2만명)	
	가한주(하북 회래현)	회래현(6천명)	
	유주(하북 연경현)	진산현(1만명)	
	울주(하북 울현)	영선현(4만명), 정안현(2만명), 비호현(1만명), 영구현(6천명), 광릉현(6천명)	
	응주(산서 응현)	금성현(1만6천명), 혼원현(1만명), 하음현(6천명)	
	삭주(산서 삭현)	선양현(8천명), 영원현(4천명), 마음현(6천명)	
	금숙군 (산서준격이기(準格爾旗) 북쪽)	기록에 없음.	방주병 1천명
	무주(산서 신지현)	신무현(1만명)	
	하청군(산서 동승(東勝) 북쪽)	기록에 없음.	방주병 1천명
중경 <sup>44)</sup> 전체 향병수가 기록에 없음	고주(내몽골 적봉시 동쪽)	삼한현(1만명)	

- 40)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요나라는 5경을 건립하였다. 임황은 거란의 옛 땅이다.
- 41)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동경은 본래 발해의 땅으로, 요가 이곳에 남경 요양부를 건립하였다. 남경에는 6현과 26군, 부, 주, 성이 있었다. 938년(천현 13년)에 태종이 이름을 동경으로 고쳤다.
- 42)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남경 석진부(析津府)에는 11개 현과 9개 군, 부, 주, 성이 있었다.

이밖에 요에는 예탈군(檄刺軍)이 있었다. 예탈군은 조정에 직속된 부대였으며, 황제 의장을 호위하는 일을 맡았다. 군에도 예탈사를 두어 변방의 척후 군사정보 등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sup>45)</sup> 요의 금군은 남경과 중경, 서경에 주둔하였다. 군사업무는 각각 서경은 을실왕부, 중경은 남·북대왕부, 남경은 원수부가 맡았다. 동경의 경우 도부서사와 동경 통군사가 있었다. 상경은 상경총관부와 상경성황사사가 상경의 군사업무를 주관하였다.

거란의 15세 이상 성인 남자는 50세까지 모두 전쟁에 참전하였다.<sup>46)</sup> 이는 거란인은 모두 군인이라는 전민개병제를 뜻한다.<sup>47)</sup> 거란은 주생활이 유목과 수렵이었으므로 평시에도 말타기, 활쏘기 등의 전투기술을 연마하였다.<sup>48)</sup> 거란족은 전쟁이 임박하면 각 부족의 형편에 알맞게 부대를 조직하였다. 이를 ‘부족군’이라 한다. 앞에서 설명 하였지만 부족군은 병력수가 가장 많았던 오경향병의 위였다. 이처럼 요는 기병중심인 부족군을 중앙군으로서 중시하였다. 부족군은 거란족을 포함한 주변 유목 민족을 포함하기도 하며, 부족군과 같은 의미로 규군(紉軍)이 있다. 규군은 거란 초기 거란족 안의 다양한 부족군을 뜻하였지만, 거란이 주변 민족을 지배하면서 거란 이외의 다양한 부족의 군대를 규군으로 범칭(汎稱)하였다. 규군은 황궁을 수비하고, 전쟁시에는 황제와 함께 전선(戰線)에 나가 중앙군

43)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서경 대동부에는 7개 현과 17개 군, 부, 주, 성이 있었다.

44) 『遼史』 권36, 「지」 제6, 병위지. 성종 통화 22년에 칠금산(내몽골 장흥 서북)에 성을 쌓고, 대정부(大定府)를 건립하고 중경이라 하였다. 중경에는 9개 현과 23개 군, 부, 주, 성이 있었다.

45) 『遼史』 권3, 「본기」 제3, 태종.

46)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47) 이재범,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 1999, 187쪽. 유목민은 4~5세가 되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48) 『구당서』, 「북적전」, 거란조.

으로 활약하였으며, 규군가운데 요련규군은 926년 선봉군으로 발해의 수도인 홀한성(忽汗城)을 정복하였다.<sup>49)</sup> 또한 규군은 요를 지키기 위한 수비군으로도 운영 되었다.

요의 황제는 평소에 알로타라 불리는 궁위에 있었고, 출행 때는 날발(捺鉢)이라 부르는 행영에 있었다. 이 행영에서 진(鎭)을 구성하고 부족군을 통솔하였다. 아래의 <표 4> 는 요의 중앙군을 도표화한 것이다.<sup>50)</sup>

<표 4> 요의 중앙군

중앙군 (中央軍)	어장친군 (御帳親軍)	태종	대장피실군(大帳皮室軍)으로 기병 30만
		지황후	속산군(屬珊軍)으로 기병 20만
대수령 부족군 (大首領部族軍)	친왕대신군	태자군(太子軍)	친왕대신들의 사병적 성격의 군대임. 이들은 왕사(王事)를 따랐음. 평시에는 크게는 1천기, 작게는 수백기로 편성됨. 전시가 되면 3~5천여기가 편성됨.
		위왕군(偉王軍)	
		영강왕군(永康王軍)	
		우월왕군(于越王軍)	
		마담군(麻答軍)	
중부족군 (衆部族軍)	북부 28부	시종궁장	해왕부부
		진남경	오원부, 육원부
		동북로 초토사	오외부
		동북로 통군사	요리부, 백덕부, 오리부, 남극부, 북극부, 도로부, 출자달로궤부, 하서부
		서북로 초토사	돌려불부, 오연여진부, 실위부
		서남로 초토사	날랄부, 오고날랄부, 날랄월울부, 매고실부, 힐적부, 익홀당고부, 학랄당고부
		황룡부도부서사	외연돌궤부, 오연돌궤부, 북당고부, 오국부
		오고적력 통군사	질로적력부
		술의 오고부	북적력부
		남부 16부	진주 서남경

49)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남부16부	서남로 초토사	품부, 질탈질달부, 품달로궤부, 을전여진부
	서북로 초토사	저특부
	동북로 통군사	달마비고덕부
	동북로 여진병마사	을실외부
	동경도 부서사	저특외부, 요조부, 초와부, 갈출부
	수도탑령	외복괄부
	동주본경	살리갈부, 남당고부, 설특부

요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면행군관(北面行軍官)을 설치하였다. 행군관은 군사 기밀을 다루는 추밀(樞密)과 각 부대를 통솔하는 도통(都統), 부서(部署) 등을 예하에 두고, 선봉군(先鋒軍)과 양익군(兩翼軍)을 운영하였다. 전장에 임할 때는 중군(中軍)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전선을 유지하며 진군하였다. 북면행군관에 관한 것은 아래 <표 5> 와 같다.<sup>52)</sup>

<표 5> 요의 북면행군관

행추밀원(行樞密院 : 좌·우임아(林牙)와 참모로 구성됨), 행군도통소(行軍都統所 : 감군(監軍), 행군제부도감(行軍諸部都監), 감전(監戰)으로 구성됨. 예하 부대로 행군도통, 행군부도통, 행군도감이 있음).
행군도압사(行軍都押司 : 도압관과 부압관이 있음), 행군도부서사, 선봉사사, 선봉도통소, 좌익군도통소, 우익군도통소, 중군도통소, 어영도통소, 원탐군(遠探軍 : 소교(小校)와 예랄(拽刺)이 있음), 후기(候騎 : 정후(倥候), 후인(候人), 예랄이 있음).
동정행추밀원, 동정도통소(동면행군도통소 또는 동로행군도통소), 동정통군사, 동정선봉사사, 서정통군사, 남정도통소(남면행군도통소라고도 함), 남정통군사, 남면행영총관부, 남면행영도부서사, 하남도행군도통소, 북도행군도통소, 동북면행군도통소, 서북면행군도통소, 서남면행군도통소.

## 나. 지방군(변방군)

『요사』 53)에 요는 동쪽으로 고려와 접하고, 남쪽으로 중국 한족의

50)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51) 『遼史』 권3, 「분기」 제3, 태중.  
 52)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53)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국가들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조북과 출불고(朮不姑) 등과 서쪽으로는 토혼,<sup>54)</sup> 회골,<sup>55)</sup> 당항<sup>56)</sup> 등의 국가와 반목(反目)을 하고 있었다. 요는 사방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아래 <표 6> 과 같이 북면변방관(北面邊防官)을 설치하였다.<sup>57)</sup>

<표 6> 요의 북면변방관

상경로(上京路)의 각 사(司)에서 여러 해족(奚族) <sup>58)</sup> 을 방어함.	제군도우후사(諸軍都虞候司), 도우후(都虞候), 해왕부(奚王府: 부족관에 있음), 대척은사(大惕隱司), 대국구사(大國舅司), 대상곤사(大常袞司), 오원사(五院司: 부족관에 있음), 육원사(六院司), 답온사(答溫司: 분명하지 않음).
요양로(遼陽路)의 각 사(司)에서 고려와 여진을 방어함.	모병마도부서(某兵馬都部署), 모병마부부서(某兵馬副部署), 모병마도감(某兵馬都監), 모도부서관관(某都部署判官). 제통군사(諸統軍使), 도통군사, 부사(副使), 도감(都監) 등의 관직.
	동경병마도부서사(東京兵馬都部署司), 거란·해·한·발해 4군지도휘사사(契丹奚漢渤海四軍都指揮使司), 거란해군도지휘사사, 해군도지휘사사, 한군도지휘사사, 발해군도지휘사사. 동경도통군사사(東京都統軍使司), 동경도상온사(東京都詳穩司), 보주도통군사(保州都統軍司), 당허상온사(湯河詳穩司: 南女真湯河司라고도 함), 표와사(杓窩司: 분명하지 않음), 금요영(金吾營: 남면에 속함), 동주북병마지휘사사(銅州北兵馬指揮使司), 내주남병마지휘사사(萊州南兵馬指揮使司).
장춘로(長春路)의 각 사(司)에서 동북쪽의 여러 나라를 방어함.	황룡부병마도부서사(黃龍府兵馬都部署司: 도감사사), 황룡부철려군상온사(黃龍府鐵離軍詳穩司). 함주병마상온사(咸州兵馬詳穩司), 지함주로병마사(知咸州路兵馬事), 동지함주로병마사(同知咸州路兵馬事), 함주규장(咸州糾將). 동북로도통군사사(東北路都統軍使司: 장법관(掌法官)이 있으며, 1090년 도종 대안 6년에 설치함).
	남경도원수부(南京都元帥府: 남면에 속함. 병마도총관과 총령남면변사(總領南面邊事), 총령남면군무(總領南面軍務), 총령남면수병(總領南面戍兵) 등의 관이 있음) 남면마보군도지휘사사, 시위공학도지휘사사(侍衛控鶴都指揮使司), 연경금군상온사, 남경도통군사(南京都統軍使: 연경통군사라고도 하다가, 994년 성종 통화 12년에 남경통군도감이라 하였음). 우란도통령사(牛欄都統領司), 도통령(都統領), 부통령(副統領).

54) 토욕혼의 약칭이다. 선비 모용부의 한 갈래이며, 요령성 일대에서 유목생활을 하였다.  
55) 중국 서북지역의 회골인이 사는 지역이란 뜻이다. 회골인은 위구르 계통이다.  
56) 청해와 사천 송반에서 살다가 토번의 압박으로 감숙, 섬북 일대로 이주하였다. 당항의 수령은 척발씨이며, 당조로부터 이씨를 하사받았으며, 1038년 이원호가 대하를 건국하였다.  
57)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p>거마하수장사(距馬河戍長司) : 1018년 성종 개태 7년 거마하<sup>59)</sup> 연안 송나라 경계 동서 7백여리에 수비대장을 1명씩 두어 순찰시켰다. 한편 『요사』 연기 성종조에는 수장으로 하여금 거마하 연안에서 순찰을 돌게 한 것이 1028년 성종 태평 8년으로 기록되어 있음.<sup>60)</sup> 감군채동령사(監軍寨統領司), 석문동령사(石門統領司), 남피실군상운사(南皮室軍詳穩司), 북피실군상운사, 맹에랄상운사(猛拽刺詳穩司), 관압평주갑마사(管押平州甲馬司), 관압평주갑마.</p>
<p>서경의 각 사(司)에서 서하를 방어함.</p>	<p>서남면안무사(西南面安撫使司), 서남면안무사                  서남면초토사(西南面哨使司) : 916년 태조 신책 원년에 설치하였음. 서남로초토사라고도 한다), 서남로초토사라고도 함.                  서남면대상운사(西南邊大詳穩司), 서남로상운사(西南路詳穩司), 서남면오압초토사(西南面五押哨使司), 오압초토대장군(五押哨討大將軍).                  서남로순찰사(서남순변관이 있다), 서남로순찰장군.                  서남면순검사, 서남면순검, 서남면동순검.                  서남면예탈상운사(西南面拽刺詳穩司).                  산북로도부서사(山北路都部署司 : 지산북도변경사관이 있다).                  금숙군도부서사(金肅軍都部署司), 남왕부(북면조관에서 보임).                  북왕부, 을실왕부, 산금사(山金司 : 알타이 지역 북쪽임).</p>
<p>서북로의 각 사(司)에 배속되어 서북지역의 여러 국가를 대비함.</p>	<p>서북로초토사사(西北路哨使司 : 지서로초토사사, 감군이 있다).                  서북로관압상운사(西北路管押詳穩司), 서북로총령사, 총령서북로군사관, 영서북로십이반군사사(領西北路十二班軍使司), 거란군상운사, 토혼군상운사, 술툼군상운사(述律軍詳穩司), 금군상운사, 해왕부사리군상운사, 대실위군상운사, 소실위군상운사, 북왕부군상운사, 특만군상운사, 군목군상운사, 궁분군상운사.                  서북로금오군(남면에 속함), 서북로병마도부서사, 서북로조북도부서사, 서북로통군사, 서북로수장사, 서북로금군도통사, 서북부진무사(서북 여러 부의 군민을 관장, 진무서북부사관이 있음), 서북로순검사.                  흑수하제할사(黑水河提轄司 : 중경 검주(요령시)에 설치).</p>
<p>동북로의 각 사(司)</p>	<p>동북로병마상운사(동북면상운사라고도 함), 동북로감군마사(東北路監軍馬司 : 관압동북로군마사관이 있다), 동북로여진상운사, 북여진병마사(동경의 요주에 설치함)</p>
<p>서남쪽 변방의 각 사(司).</p>	<p>서남면절제사(절제서남제군사(節制西南諸軍事)가 있다), 서남면도통군사.                  산서병마도통군사, 서로초토사사, 서면대상운사.</p>
<p>서로의 각 사(司).</p>	<p>사면도군사(四蕃都軍所 : 986년 성종 통화 4년에 설치하였음. 이계충(李繼冲)<sup>61)</sup>이 통솔 하였다), 하주관내번략사(하주관내번략사 : 986년에 설치되었다. 이계천이 담당하였음).                  도탑령절도사사, 도탑령통군사, 탑서절도사사, 탑모성절도사사.</p>

위의 <표 6> 과 같이 요는 1068년 도종(함옹 4년) 대에 북면변방관에 도통군사를 설치하였다. 요의 지방군사 기구인 도통군사는 북면관

58) 노합하(老哈河) 일대에서 살던 5부로 이루어진 부족이다.  
 59) 하북 신성에서 천진(天津)으로 흐르는 강.  
 60) 『遼史』 권1, 「본기」 제17, 성종.  
 61) 이계천(李繼遷)의 동생으로 당항족이다. 이계천은 대하를 세운 이원호의 조상이다.

에 속하며 예하에 통군사, 부사, 도감 등을 배속시켰다. 남·북대왕 원에 남·북 도통군사가 있으며, 이들이 전쟁시에 도통군을 통솔하였다. 동경도통군사, 동북로도통군사, 동로도통군사, 서남면도통군사, 남경도통군사, 산서병마도통군사, 보주도통군사, 서북로통군사, 도탑령통군사 등은 변방 주둔군을 통솔하였다. 특히, 동경도통군사는 동경도 각 로(路)의 병사들을 통솔하게 하였으며, 동북로도통군사는 태주(泰州), 장춘주(長春州), 영강주(寧江州), 동북 제부의 병마를 총괄토록 하였다. 남경도통군사는 남경한군(南京漢軍)을 총괄하고, 산서병마도통군사는 서남쪽 변방을 방어토록 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행군시에도 통군사를 설치하였으며, 동정통군사(東征), 서정통군사, 남정통군사가 있었다.<sup>62)</sup> 행군도통은 전시에 군사를 총지휘하게 하였다. 황제가 친정을 할 때는 훈척대신 중에서 선발하여 행영병마도통과 부도통을 삼았다. 대장이 출정할 때는 행군도통이라 불렀다.<sup>63)</sup>

태조가 919년 요양의 옛 성을 수축한 이후에 발해와 한족(漢族)의 민호(民戶)를 옮겨와 살게 하였다. 수축한 성의 이름을 동평군(東平郡 : 현재의 요령시)이라 하고,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 방어사는 관할구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관이며, 요대에는 방어주의 장관으로 그 위치는 단련사(團練使) 아래 자사(刺史)의 위였다. 방어사 아래 방어부사와 방어판관을 두었다.<sup>64)</sup> 요의 각 주에는 절도사(節度使)가 있었으며,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였다. 요는 주군(州軍) 외에 부족 절도사가 있어 거란족 및 기타 부족을 다스렸다.<sup>65)</sup> 부족조직 및 그 부민은 변방을 방어하는 부족군이 되어 군사적 책임을 다하였다. 각 부족은 정해진 방목지와 수비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 부족군 가운데 오원부와 육원부는 남경에 주둔하여 송나라에 대비하고,

62) 『遼史』 권22, 「본기」 제22, 도종.

63) 『遼史』 권7, 「본기」 제7, 목종.

64) 『遼史』 권2, 「본기」 제2, 태조.

65) 『遼史』 권2, 「본기」 제2, 태조.

오외부는 동북에서 여진을 방어하며, 돌여불부와 저특부 등은 서북에 주둔하면서 서북의 각 유목부족을 방어하였다. 날랄부와 을실부, 품부 등은 서남에 주둔하면서 서하와 조복을 대비 하였다.<sup>66)</sup>

요는 국경 지역에 초토사(招討使)와 통군사(統軍使), 도부서사를 설치 운영하였다. 서북로초토사는 진주(鎭州)에 주둔하고 서북지역의 유목민을 통제하였다. 서남로 초토사는 풍주에 주둔하며, 서하 방면을 방어하였다. 동북로 통군사는 태주 지역을 담당하고, 도부서사는 황룡부에 위치하면서 동북 지방의 국경을 수비하였다. 국경 지역의 여러 부족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규군(紮軍, 부족군)이라 하였다.<sup>67)</sup> 이들은 농경민이 아닌 유목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요의 수비군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수비군의 군호(軍戶)는 군목이규군(群牧二紮軍)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목이규군은 동북로와 서북로의 여러 규(紮)로서 군을 편성하였다. 996년 성종(통화 14년)은 각각의 수비군에 도감을 두어 규군을 정식 수비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sup>68)</sup>

요의 동북방 국경 수비군과 관련된 것으로 『요사』에 고려의 『대요사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요가 고려와 여진에 대비하여 동북방 국경 수비군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동북방 국경 수비군은 모두 1부(府), 1주(州), 2성(城), 70보(堡), 8영(營)으로 구성되며, 정병 2만2천 명이였다. 고려와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동북방 국경 수비군은 아래 <표 7> 과 같다.<sup>69)</sup>

66) 나영남, 앞의 글(2015), 317쪽.

67) 나영남, 앞의 글(2015), 325쪽. 규군은 『遼史·百官志』의 북면군관조에 십이행규군(十二行紮軍) 각궁분규군(各宮分紮軍), 요련규군(遼輦紮軍), 각부족규군(各部族紮軍), 군목이규군(羣牧二紮軍) 등 다섯 종류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편제나 역할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규군은 요대의 특정한 임무를 지닌 정규군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대에 와서 비로소 정식 군대의 편제에 소속된다. 확실한 것은 금대 규군이 서북 변경지구에 있는 유목 부족으로 구성된 군대였으며 훗날 금조를 배신하고 몽골에 투항해서 거꾸로 금을 공격하였다.

68) 『遼史』 권46, 「지」 제16, 백관지.

69)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흥요국은 황룡부와 보주와 같은 발해 유민으로 구

〈표 7〉 요의 동북방 국경 수비군

부대 명	병력 수	내용
황룡부	5천명	동경에서 압록강 서북봉(西北峰)까지를 경계로 삼았다.
함주	1천명	
기록에 없음.	1천4백명	군사 보루 70곳에 각각 수비군 20명을 두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천4백명이다.
태자영	3백명	내원성(來遠城) 선의군(宣義軍) 8영(營).
대영	6백명	
포주영	2백명	
신영	5백명	
가타영	3백명	
왕해성	3백명	
유백영	4백명	
옥야영	1천명	
신호군성	1만명	대강 10년(1084년) 설치.

요는 변방지구에 안무사(安撫使)를 분산 배치하였다. 이들은 변경을 순찰하고 적의 반항과 항복에 대한 일을 담당하였다. 또한 제치사(制置使)를 두어 지방을 관리토록 하였다. 제치사는 제사(制使)라고도 하며,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제치사는 1로 또는 여러 로의 군사를 통괄하는 일도 수행하였으며, 임시직이었다.<sup>70)</sup> 이밖에 요는 지방의 치안을 위해 연변순검사(緣邊巡檢使)를 두었다. 특별한 경우 기병 6만명 정도가 계절을 따지지 않고 국경 밖 3백여리를 순찰하였다. 이들 특별 순찰병들은 순찰지에서 사람들이 살수 없도록 주거지를 파괴하고, 곡식과 가축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sup>71)</sup>

성된 지방군의 협조를 받아 요의 중앙군에 맞서려 하였지만, 황룡부와 보주는 협조하지 않았다.

70) 『遼史』 권16, 「본기」 제16, 성중.

71)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요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은 국가들을 『요사』는 속국군(屬國軍)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록된 국가는 59개이며,<sup>72)</sup> 이들 국가 가운데 신라와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속국군은 요나라의 지원군으로서 지원군의 규모는 국가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였다. 만약 속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요나라는 바로 응징하였으며, 홍종 중희 17년(1048년)과 같이 철불득국(鐵不得國)이 지원군을 보내고자 하여도 조서를 내려 불허한 예가 있다.<sup>73)</sup>

### 3. 遼의 기병과 보병 전술

#### 가. 기병 전술

요군은 황제의 친정과 황제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원병력은 대략 10만 내외였다. 요군의 최소기본단위는 조(組)와 편사(偏師)이다. 요군은 항상 5~10기를 단위로 하는 조를 편성하여,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적의 뒤를 추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머지 해당 조원도 함께 추격에 가담하여 서로 협조하도록 하는 군령(軍令)이 있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극형에 처하였다. 이 때문에 거란군의 기병들은 항상 개인 행동을 삼가고,

72)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토욕혼, 철려, 말갈, 을야, 흑거사실위, 서해, 동부해, 오마산해, 사리지, 돌궐, 당항, 소변, 사타, 조북, 오고, 소곤나, 호모사산번, 파사, 대식, 김주회골, 신라, 오손, 돈황, 임털, 요리, 회골, 할알사, 토번, 황실위, 소황실위, 대황실위, 아살란회골, 우전, 사자, 북여진, 하서당항, 남경여진, 사주돈황, 갈소관, 사주회골, 사지저, 포로모타, 포노리, 대번, 고창, 회발, 파리, 달리지, 발사모, 적렬, 점팔갈, 매리급, 야도괄, 비골덕, 화주회골, 알랑개, 고려, 서하, 여진.

73) 『遼史·金史·元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47쪽. 이미 927년 멸망한 신라가 속국군에 포함되어 있고, 철불득국이 없다. 때문에 『遼史』의 屬國軍은 정확하지 않다.

적과 맞서서 싸울 때는 서로 힘을 합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요의 1편사는 일반적으로 전차(戰車)의 경우 25대이고, 보병의 경우 사졸 50명이다.<sup>74)</sup> 이밖에 부대 규모로는 최소 단위가 1대로 5백~7백명의 규모였다. 그리고 10대를 1도(5천~7천명), 10도를 1면(5만~7만명)으로 하여 전투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sup>75)</sup> 요군은 부대를 편성하면서 형제, 숙질, 부자와 같은 친족을 하나의 대로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 또는 씨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부대원간의 응집력이 높았다.<sup>76)</sup> 요군은 행군을 하면서 최대한 말을 쉬게 하였으며, 북을 세 번 두드리면 고함을 치며 사기를 올렸다. 적을 만나면 그동안 타지 않았던 말을 타고 대오를 갖추며 싸웠다. 요군은 기병 1인이 말 3필을 가지고 다녔다. 이는 말의 기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목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전술이다. 요군은 전쟁에 참전하더라도 국가에서 병기와 군량을 제공하지 않았다. 요군은 스스로 기병 한명 당 철갑 1벌, 마천(馬鞭), 비(轡), 마갑피철(馬甲皮鐵), 활(4장), 화살(400개), 길고 짧은 창, 골타(餽朶), 부월(斧鉞), 작은 기, 추추(鎚錐), 화도석(부식돌), 마우(馬盂), 사(抄) 1말, 사대(抄袋), 탑구(搭鉤), 전산(氈傘) 각 1개, 미마승(繫馬繩) 2백자를 스스로 준비토록 하였다. 또한 전투병사의 보급을 위하여 打草谷騎(타초곡기)와 守營鋪家丁(수영포가정)를 각각 1인씩 두었다.<sup>77)</sup> 타초곡의 임무는 병사가 출정시 병기와 장구를 조달하고 군량과 마초(馬草)를 보급하였다.

요군은 전진할 때에 좌·우익군을 평행선 노상에 배치하였다. 이것은 적의 군세가 막강할 경우 접근전을 피하고, 적의 보급을 끊어 버리기 좋은 전술이었다. 요군의 전술적 특징으로 돌격기병이 있다.

74) 『遼史』 권11, 「본기」 제11, 성종.

75)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76) 이재범, 앞의 글(1999), 188쪽.

77)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돌격기병은 1기병이 3말을 이끌고 과상적으로 선봉 1대가 소리를 지르며 적을 공격하였다.<sup>78)</sup> 선봉 1대는 적의 저항이 약하면 계속 과상적으로 돌격을 하고, 적의 저항이 크면 후퇴를 하였다. 선봉 1대를 2대가 지켜보고 있다가 선봉 1대와 같이 과상적으로 적진으로 돌격을 한다. 이때 선봉 1대는 휴식을 취하며 말에게 물과 풀을 먹인다. 마찬가지로 3대는 2대를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행동을 하였다.<sup>79)</sup> 이렇게 요군은 적을 공격하면서 3교대로 나누어 휴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병사와 말을 쉬게 하여 돌격기병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었다. 요군은 돌격기병의 과상적인 공격 후에도 적이 쉬지 못하도록 타초곡군을 이용하여 적을 교란시켰다.<sup>80)</sup> 한편, 요군은 3교대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과 함께 적의 선봉을 꺾기 위한 다른 전술로 병력을 3등급으로 나누었다. 제1등급은 최정예병으로 편성하고 이들은 전열의 최후방에 배치하였다. 제2등급에 속하는 병사들에게는 전열의 중간에 배치하였으며, 3등급에 속하는 병사들을 전열의 최전선에 배치하였다. 적이 3등급의 병사들과의 싸움으로 전열이 흐트러지면 제2, 제1의 정예병이 투입되는 전술이다.<sup>81)</sup>

요군은 복병과 같은 기습군과 기병을 이용한 기동 특수군을 활용하였다. 요군의 수색대인 원탐난자군(遠探攔子軍)은 각 부대에서 가장 빠르고 날쌌던 자를 1백여명 뽑아서 편성하였다. 이들은 선봉군 전·후 8km 부근에서 전진하였다.<sup>82)</sup> 야간에는 본대와의 거리를 2~4km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달렸으며, 언제라도 말에서 내려 적

78) 요의 돌격기병은 빠르게 적지에 침투하여 왕과 같은 지배층을 잡았다. 그 예로 발해의 대인선(906~926)과 고려 강조를 신속하게 잡았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李弘斗(『고려거란전쟁과 기병전술』, 『사학연구』 12, 2005)가 있다.

79)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80)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타초곡군을 이용한 교란법으로 말에 밧지루 두 자루를 매어 빨리 달리게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있다.

81) 李弘斗, 앞의 글(2005), 82쪽.

82) 『遼史』 권34, 「지」 제4, 병위지.

의 움직임을 주시하였다. 순찰중에 적이 있으면 즉시 사로잡아 정보를 구하고, 적의 세력이 크면 신속하게 선봉부대와 주력부대에 이를 보고하였다. 원탐난자군은 기동간 경계 및 수색임무 이외에도 숙영지에서의 경계임무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거란군은 행군로상에 있는 요새들을 바로 공격하였으며, 만약 적의 요새가 크면 공격시의 허와 실을 따져서 공격의 유무를 결정하였다.<sup>83)</sup> 요군은 적의 밀집 방어를 뚫기 위한 전술로 부족군으로 이루어진 철요군(鐵鷄軍)을 운영하였다. 철요군은 철로 기사와 말을 중무장한 것으로 돌격기병의 역할보다는 적의 밀집방어를 파괴하기 위한 특수기병이었다. 철요군은 철로 중무장한 갑옷을 병사와 말이 입고 있어서 적의 칼날이 들어가지 않았다.<sup>84)</sup> 이밖에 송에서 항복한 포로를 활용한 특수군으로 사첩군(四捷軍)과 귀성군(歸聖軍)이 있다.<sup>85)</sup> 이와 같이 요군의 주력은 기병으로 이루어진 돌격기병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보급을 충당해야 했으며, 적지에서 물품을 약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탈은 고려와 같은 국가에서 실시한 청야전술에 속수무책이었다.<sup>86)</sup> 또한 본국에서의 보급도 전선이 길어질수록 원활하지 않아, 요군은 장기간의 지구전을 수행하기 힘들었다.

## 나. 보병 전술

요군은 한족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요새화된 성곽을 점령하기 위

83) 李弘斗, 앞의글(2005), 84쪽.

84) 『遼史』 권4, 「본기」 제4, 태종. 철요자 또는 철요군이라 한다. 당항의 귀족과 호추(豪酋)의 자제와 친신하는 군사들로 조직되며, 총수가 3천명인데 10대(隊)로 나눈다. 말을 타고 중무장 갑옷을 입었으며, 몸을 마상에 붙들어 매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85) 『遼史』 권9, 「본기」 제9, 경종.

86) 전경숙,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군사』 91, 2014. 고려군은 거란기병에 대항하기 위해 청야전술과 함께 수레에 예리한 칼날을 꽂고 방패를 설치한 검차를 활용하였다.

한 전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산과 계곡이 많고, 성곽이 많은 지역에서는 기병 보다는 보병이 효과적이다. 요군은 한족이 주축이 된 보병 중심의 향병을 운영하였다. 요는 한족을 활용한 보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023년에 병마도총관부(兵馬都總管府)를 설치하였다. 병마도총관부는 남면통병(南面統兵)의 상설기구이며, 5경의 유수가 병마도총관을 겸하여 총괄하였다. 병마도총관부에는 한족이 많으며, 송에서 항복한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병마도총관 아래에 병마부총관과 동지병마사(同知兵馬使), 병마판관(兵馬判官) 등이 있었다. 병마도총관부는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로 부르기도 하였다.<sup>87)</sup> 『요사』에 956년 후주가 침략해 오자 남경유수 소사온을 병마도총관으로 삼아 대적하게 하였으며 후주의 익진관 등을 함락시켰다. 963년에는 송이 익진관에 성을 쌓으려 하자 남경유수가 이를 막고 있다.<sup>88)</sup> 또한 993년 성종은 동경유수 소항덕(蕭恒德 : 고려사에는 소손녕(蕭遜寧)임)에게 고려 1차 침공을 맡겼다. 5경의 유수는 병마총관을 겸하면서 오경향병을 통솔하였으며, 오경향병은 요의 주력군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오경향병은 농민병으로 일정기간 순번을 통해 군역을 감당하고 있었다.<sup>89)</sup> 때문에 유목 생활이 군사훈련과 같았던 상무적 성격의 요군은 전술적 변화를 갖게 된다. 요군은 전술적으로 보병 중심의 운영으로 돌격기병에 의한 신속한 전술이 아닌, 방진(方陣)에 의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sup>90)</sup>

보병은 기병 보다 공성전(攻城戰)에 효과적이다. 요군은 적의 성곽을 공격할 때 성 주변의 참호(塹壕)를 정복민을 활용하여 매우도 록 하였다. 또한 중국의 투석기를 사용하여 성곽을 파괴하였으며,

87) 『遼史』 권6, 「본기」 제6, 목중.

88) 『遼史』 권6, 「본기」 제6, 목중.

89) 『遼史』 권13, 「본기」 제13, 성중.

90) 『遼史』 권4, 「본기」 제4, 태종. 방진은 대열을 네모로 하고, 공격을 위한 보병 전술이다. 병력을 중앙은 적고, 외곽은 많이 배치하였으며 장수가 뒤에서 통솔한다.

성곽을 오를 때도 정복민 가운데 노인과 어린이를 강제로 먼저 오르게 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점차 요군은 기병과 보병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공성 장비도 함께 개발하였으며, 공성을 위해 공병단도 운영하였다. 공병단은 공성을 위한 굴착과 토산축조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였다. 요군의 보병이 공성을 위해 운제(雲梯), 당차(撞車), 발석차(發石車) 등의 공성 장비를 갖고 성을 공격하였으며, 보병을 엄호하기 위한 특수군으로 포병(砲兵)과 노병(弩兵) 등이 있었다. 요군은 적의 성곽이 견고하고 방어가 철저해서 정복하기 힘들면 성안으로 대량의 활을 쏘아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성을 포위한 후에 북등을 치며 시끄럽게 해서 적을 겁주는 전술이 있었다. 요군은 공성전에도 적성이 버티고 항복하지 않으면,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본진은 적성을 통과하여 진군하였다. 남은 병력은 적성을 포위해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었다. 요군은 군량 등을 현지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장기전이 불리했으며,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병력을 남겨 둔 것이다. 요군은 통과한 지역의 적군이 뒤늦게 인근 적 요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할 경우를 대비하였다. 통과지역 각 성 부근에 정예기병 100여 명씩을 매복시켰다가 적 성이 열리면 성 안으로 기습 공격을 하여 성안을 정복하거나, 야간에 풍향을 이용한 화공으로 적 성안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sup>91)</sup>

#### 4. 맺음말

이상으로 요의 군제와 전술을 살펴보았다. 요는 건국 전에 고향

91) 『고려사』 권94, 「열전」 7, 지채문. 거란의 정착기병대인 원탐난자군은 서경 북쪽 10리의 중흥사탑을 불태우고 민가를 초토화시켰다.

부와 수십부, 대하씨 연맹, 요런씨 연맹을 거치면서 부족제도를 완성하였다. 요의 태조인 야율아보기는 과거 혈연조직을 기초한 씨족 집단을 재편하여 요제국 체제하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으로 바꾸었다. 요의 태조는 북·남 재상부를 만들어 거란족의 민정과 군정을 맡게 하였으며, 태종 대에 북면관에 예속시켰다. 태종 대부터 북면관은 요의 군사를 총괄하였다. 태조와 역대 황제들은 항복한 정복민을 자신을 궁위에 배속시켰으며, 이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친위군인 궁위기군을 양성하였다. 또한 보병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한족을 활용한 오경향병을 양성하여 요의 중앙군으로 활용하였다. 요의 황제들이 궁위군과 오경향병을 중앙군으로 양성한 것은 건국 초기 요의 주력군이었던 부족군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들 부족군은 거란족으로 구성된 기병 부대로 시작하여, 다양한 부족으로 편성된 부대인 규군으로 범칭(汎稱)되었다. 규군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든지 정권 찬탈에 이용될 수 있었다.

요군은 핵심 중앙군으로 어장친위군을 운영하였다. 어장친군으로 태조가 만든 대장피실군과 응천황후가 만든 속산군이 있었다. 이들은 전장에 나가 활약을 했으며, 변방의 위급한 일에 대응하는 신속군으로서 활약하였다. 이들 친위군에는 다양한 특수병들이 있었으며, 주변 부족의 특기를 살린 특수군도 있었다. 요는 기존의 부족적 성격의 부족군을 확대 개편하여 5경을 중심으로 방어군을 편성하였으며, 변방군을 운영하여 사방의 적을 방어하였다. 특히 동북면의 고려와 여진, 남방의 송, 서방의 서하에 대한 방어에 치중하였다.

요의 건국 초기에는 부족적 성격이 강한 기병을 활용한 돌격기병이 핵심 전력이었다. 돌격기병은 적의 중심지로 빠르게 침입하여 적의 수도를 장악하고, 왕이나 적군의 지휘자를 사로잡는 전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도 산과 계곡이 깊고, 성곽이 높은 요새화된 성곽을 공성하는 것은 힘들었다. 성곽을 공성하는 것은 기병보다는 보

병이 유리하였다. 요는 고려와 송 등과 같은 국가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기병과 함께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향병을 운영하였다. 향병은 한족이 다수 포함 되어 있었으며, 병농일치의 부대였다. 향병으로 이루어진 보병은 주로 공성을 위해 투입되었다. 공성을 위한 부대는 공병단과 투석부대와 같은 다양한 병종(兵種)을 양성시켰다.

(원고투고일 : 2019. 6. 25,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거란, 요, 친위군, 부족군, 향병, 돌격기병, 보병

<참고문헌>

- 『수서』  
『구당서』  
『구오대사』  
『요사』  
『요사·금사·원사 외국전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고려사』  
『고려사절요』  
『麗遼戰爭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나영남, 「요대 부족제도의 향상과 성격」, 『동양사학연구』 131, 2015.  
이재범, 「여요전쟁시 고려와 요의 군사력 비교」,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2, 1999.  
이홍두, 「고려 거란전쟁과 기병전술」, 『사학연구』 80, 2005.  
유빛나, 「초기 거란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만주연구』 17, 2014.  
전경숙, 「고려 성종대 거란의 침략과 군사제도 개편」, 『군사』 91, 2014.  
최진열, 「유목국가·이민족왕조의 통치체제 정비·운영과 정주·농경민의 역할」, 『고구려발해연구』 46, 2013.

<Abstract>

## Liao dynasty's Military Institution and Tactics

Joun, Byoung-woo

Liao dynasty completed the tribal system by going through the Gopbu, dozens of departments, the Daeha and the Ryon Ci leagues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 The King Taejo of Liao dynasty created the upper part of the North and South to take charge of the civil and military affairs of the tribe of Guran, and was subjugated to Bukmyeonwan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From King Taejong's time, Bukmyeonwan was in charge of the army of Liao dynasty.

Taejo and other emperors assigned themselves to the royal court, and mobilized them to train their own pro-military palace guards. In addition, as the importance of infantry was highlighted, Oh Gyeong-hyang's disease using the Han Chinese was developed and used as the central army of Liao. The Yoga emperors trained the royal court and the central army to reinforce the tribes, which were the main forces of Yoga in the early days of the country's founding. These tribes began as cavalry troops made up of the Giran tribe, and were called Gyu-gun, a unit that was generalized by various tribes.

Liao dynasty established a key central force and ran the Royal Guard. There were the royal friends who were created by King Taejo and the royal family, Soksan County, which was built by Empress Eungcheon. There were a variety of special forces in these pro-defense forces, and there were special forces that saved the special abilities of the surrounding tribes. In the early days of Liao dynasty founding, special cavalry was the key force utilizing cavalry with strong tribal characteristics. The special cavalry was a tactic to quickly break into the enemy's center, seize the enemy's capital, and capture the king or the enemy's commander. However, it was difficult for such tactics to build a fortified fortress with deep

mountains and valleys and high fortresses. The fortress was favored by infantry rather than cavalry. Liao dynasty operated a Hyangbyeong centered on infantry along with cavalry in the course of attacking agricultural countries such as Goryeo and Song. Hyangbyeong was a unit of the Han people and a unit of the Byeongnug. The infantry was mainly used to take down the castle.

Keywords : Gullan, Liao dynasty, cavalry, Royal Guard, Hyangbyeong, Infantry